

‘영성과 의학’ 주제로

세계 각처의 의사들이 모여 하나님 권능을 증거하는 WCDN 국제 기독교의학 콘퍼런스가 올해에도 대단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막달라 마리아의 선 (3)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 마리아는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따라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뵈는 여인이 됐다.

육인가요, 영인가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인지 그와 반대인 육의 마음인지 점검할 수 있는 네 가지 기준을 소개한다.

응답과 축복은 위로부터 온다

사업터에서 받은 축복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니 행복하다는 청주 윤석일 장로와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손수건 집회 간증.

만민뉴스

제587호 2013년 6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4개국 350여 명의 의사, 권능의 증인이 되다

WCDN 제10회 국제 기독교의학 콘퍼런스 멕시코에서 성료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초교파적인 기독교의사들의 모임으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하나님 권능에 의한 치유 사례와 기독교의사로서 의무와 소명에 관한 기초강연을 통해 교제와 우의를 다지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사진 1. 제10회 멕시코 콘퍼런스 2. 조직위원장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의 인사말씀 3.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중창단의 은혜로운 공연 4. 프란시스코 카를로스 박사의 사례발표).

지난 6월 14일과 15일,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주최 '제10회 국제 기독교의학 콘퍼런스'가 멕시코 톨루카 시에서 개최됐다.

24개국에서 온 35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성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가 시작됐다. WCDN 회장 채윤석 박사는 환영사를 통해 크리스천 의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의료인과 지식인들을 깨우는 콘퍼런스가 될 것을 당부했다.

WCDN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이재록 박사는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꼭 필요한 WCDN의 사역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해 주기 바란다."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현지 조직위원장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WCDN 국제 기독교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WCDN에 감사 인사를 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의학적 치유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로 완치된 7가지 사례가 의학 자료와 함께 발표됐다. WCDN 회장 채윤석 박사는 뇌출혈로 위급한 상태였던 두 명의 환자가 믿음으로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치유된 사례를 발표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멕시코 빠스뜨라나 피게로아 박사는 자신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딸이 갑자기 심장질환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사례를 발표했다. 또 싱가포르의 가정의학 전문의 데이빗 유 박사는 요로 감염으로 패혈증과 장 마비까지 간 아들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치유된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 동안 각 사례가 발표된 후에는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치유된 주인공이 직접 참석한 경우도 있어 이목을 끌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회 회장이자

의사인 안드레 가시오로스키 박사는 이스라엘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이 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가 믿음으로 치유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그 주인공 이나와 간증을 한 뒤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외에도 의사들의 의학과 영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이 있었다. 루이즈 파즈 박사(푸에르토리코)와 아폴로 란다 박사(페루)는 기독교 의사로서 소명과 자부심을 갖고 환자들을 영육 간에 치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준하 박사는 '응답의 법칙'을 주제로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토대로 특강을 했다. 아울러 자신의 딸이 손목 석회성 건염을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은 사례를 들며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결과 권능에 접목시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빛의소리

중창단의 공연은 장내를 하나로 만들었고, 아름다운 찬양과 무용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콘퍼런스를 마친 후, 현지 조직위원장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는 "신유의 의학적 증거들과 영혼을 소성케 하는 특강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찬양과 공연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놀라운 콘퍼런스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니엘 푸엔테스 박사는 2011년, WCDN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이 사역을 알게 된 후 WCDN 미국 디렉터 알만도 피네다 박사의 격려 속에 멕시코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지역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

한편, 페르난도 보르본 코스타리카 대사(과테말라 주재)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폐종양이 치유된 자신의 간증을 하며 첫날 콘퍼런스에서 마무리 기도를 했다. 제11회 콘퍼런스는 불가리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막달라 마리아의 선 (3)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아와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16~18)

이스라엘 갈릴리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질병을 치료받은 것은 물론, 참 행복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명 다해 붙좃았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두려워 숨은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끝까지 뒤 따라 갔지요.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싸늘하게 식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기를 위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지요.

과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붙좃았을까요?

1.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좃았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잘해 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

로 이해하려 했지요. 가족에게도 이렇듯은 진대 하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영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이렇듯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며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으실 때뿐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시 종교계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며 나쁜 사람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아는 빌라도도 민란이 일까 두려워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고 말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좃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인 제자들도 두려워 숨어버렸지만 마리아 외에도 연약한 여인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했지요.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 여인들은 자칫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지요. 이는 여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2.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 지내는 곳까지 따라갔지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향품을 가져온 니고데모와 함께 시신을 세마포로 싼 뒤 인근에 있는 새 무덤으로 옮겨갔지요. 요셉이 시신을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에 놓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은 참으로 길고도 긴 하루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 드리기를 위해 나섭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미명이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가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무덤에 당도해 보니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나마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 드리려는 마음으로 기나긴 하루를 견뎠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시 밀려오는 슬픔을 이겨낼 수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이 천사인지는 사람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했지요.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요 20:11~13).

3. 부활하신 주님을 첫 대면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체를 입으셨기에 알아보지 못했지요. 주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도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요 20:14~15).

이에 주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니 그제야 알아보고 달려가 안기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일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세주가 되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완수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입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증인으로서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뵈옵기도 전에 마리아를 만나 주신 이유는 무엇 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했고 온전한 헌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경작을 하시는 이유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어 주시길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이 없고 선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룬 막달라 마리아를 발견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겠습니까. 늘 가까이 옆에 두고 지극히 선한 향을 흠향하고 싶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 구원받아 천국에 간 여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온전한 선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창자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대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오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내 마음의 체크 리스트

영의 마음을 얼마나 이루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마음과 그에 대비되는 육의 마음을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보았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 영의 마음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점검해 보자.

물러서는 마음 vs 앞서고자 하는 마음



여기에서 '물러서는 마음'이란 어려운 일을 맡지 않으려고 움츠러 들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우유부단하게 물러서는 비진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하고 들레지 않으며 자신의 입장에 맞춰 진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이는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어찌하든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진리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려 한다. 섬기려고만 하니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반면에 '앞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이름과 공이 드러나기 원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기 원한다. 스스로 볼 때 수고한 것과 내세울 만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이다. 진정 겸비한 마음을 소유하면 아무리 수고했다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는 것을 심히도 민망히 여긴다.

이와 달리 어떤 일에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으므로 나서지 않고 뒷전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앞서려 하거나 들레는 마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내세울 것이 생기면 육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깊이 깔려 있던 근본 속성이 불평과 서운함, 부딪힘 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옳다 여기는 것이라도 때와 장소 등 모든 정황을 잘 고려해 주장할 때와 주장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해하는 마음 vs 자기편에 맞게 생각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란 상대를 좋게, 선하게 봐 주는 마음이다. 상대의 단점을 보고 꺼려하지 않으며 그 마음을 헤아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입장에서 이해한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어찌하든 힘을 내어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해할 때 상대방도 마음 문을 열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바로 이해하지 않는 데서 오해가 생기고 불화한 것이다.

자신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성장 환경과 배움, 능력과 성품이 다르다는 것과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 잘못을 덮어 주고 선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가진 진리의 잣대로 상대를 보기 전에 상대의 아픔이 먼저 마음에 느껴지기 까닭에 함께 애통하게 된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편에서 생각하니 힘든 것이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힘들거나 평안함을 잃지 않는다. 연단 중에도 항상 선으로 이해하며 영의 마음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깨달아져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인정하는 마음 vs 변명하는 마음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권면이나 지적,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한다. 뒷사람은 물론, 동료가 권면을 하고 어린 소자가 지적을 한다 해도 기분 상하지 않고 감사해한다. 자신을 위해 말해 주는 것이라고 선하게 생각하므로 상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설령 상대의 지적이 옳지 않다 해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점검한다. 상대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면도, 덕스럽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다.

반면에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권면이나 지적,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이유를 댈다. 심지어 지적하는 상대가 오히려 잘못 알고 있다 생각하며 서운해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지적이나 권면을 하려면 상대의 믿음의 분량과 마음 그릇의 크기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과 잘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도 부족하다 싶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시기, 질투로 인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칭찬받을 때 단점을 떠올리며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에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찌하든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며, 장점 하나라도 인정해 주고 그 장점을 잘 살려 나머지 단점들을 개선해 가기 바란다.

변하지 않는 마음 vs 변하는 마음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변하지 않는다. 늘 마음에 두고 자신이 받은 그 이상으로 은혜를 갚고자 한다. '이만큼 은혜를 갚았으면 됐다.' 하지 않으며, 자신이 기쁘고 충만할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행함을 멈추지 않는다.

반대로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갚아 나가다가도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그 마음과 행함이 변한다. 마음에 작정한 것을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행하다가도 나중에는 억지로 힘들게 한다. 또 아예 작정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서원한 것을 어김으로 연단을 받고 시험 환난에 빠지기도 한다.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꽃염에 있어서도 항상 변하지 않는다. 불꽃은 대상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도 영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적이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기에 행함 자체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다.

혹여 나는 영을 사모한다 했으나 물러서기보다 앞서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누리려 하는 마음은 아닌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편에 맞게 생각함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지적을 받으면 힘들어하고 마음 중심에서 인정하지 못해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는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란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6 June
2013.6.23~6.29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8-22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3-15
- 성령의 이혼까지 열매 6-9
- 사랑장 1-2
- 창세기 강해 19-23
- 육체의 결여 6-10
- 온전한 믿음

GCN TV 설교

- 팔복 1-5 (이수진 목사)
- 영은 변하지 않는 것 (이수진 목사)
- 빛을 발하는 성전 (이희진 목사)
- 지옥 (이희선 목사)
- 오중복음 1-3 (신동초 목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0-14 (정구영 목사)

간중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23-29
- GCN 간중 스페셜 7-11

해외성회 시리즈

- 인도연합대성회 4
- 뉴욕연합대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5-9
- 찬양과 경배 [3] 47-53
- GCN 금요찬양 스페셜 19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하나님을 만나 허리디스크를 치료받고

1996년, 저는 서울에서 사업 실패 후 홀로 충북 진천에 내려와 동생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이듬해 1월에는 가족도 내려와 함께 살게 됐지요. 그런데 아내 김경희 집사의 모습이 예전과 달리 사뭇 밝고 달라 보였습니다. 저의 사업 실패로 걱정 근심이 많았던 아내는 이웃의 전도로 1996년 5월,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청주만민교회(담임 문석규 목사)에 출석한 아내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에 대해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건네준 '십자가의 도' 설교테이프를 들은 후 큰 은혜를 받아 곧바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시 화상(畫像) 예배를 통해 당회장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사랑을 깨우치니 신앙생활이 행복했지요. 성전 곳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며 차량 봉사를 할 때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실 저는 1993년, 직장에 다니던 중 허리디스크로 11개월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1998년, 당회장님께서 예배 시 설교 후 단에서 해주시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 누군가 허리를 만져주는 느낌이 들더니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 제 꿈은 교회 장로의 직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니 행복합니다”

윤석일 장로 (청주만민교회)

서 하나님 나라와 목자의 큰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돌아보며 기도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요.

그러던 2011년 봄,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대신해 사업의

기반이 되는 물품을 인수받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상호를 '주신기업(主信企業)'으로 정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주님을 믿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정도 경영에 힘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한 사업은 공장 생산 라인에 필수 부품인 유공압 밸브, 실린더 판매는 물론 기계(시스템) 수리 및 조립하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개업할 때 제품을 구비해야 하는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마다 담보 없이도 제품을 납품해 주며 오히려 빨리 번창하라는 말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2011년 9월, 드디어 당회장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달부터 높은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 경영에 힘쓰며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에게 연락이 오면 이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연결해 주었지요. 제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소문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점점 신뢰가 쌓여 사업은 안정돼 갔고, 2012년 2월에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벗어나 상가 건물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통해 받은 축복을 교회와 영혼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 마음을 닦은 참 자녀가 되고자 달려가고 있지요.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해외 지교회 _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손수건 통한 권능의 역사,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가 담임하는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에서는 매달 '권능의 손수건 집회' (행 19:11~12, 사진 3)가 열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최근 '권능의 손수건 집회' 시 나타났던 치료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한다.

타 교회에 출석하는 메리 왓부이 성도(49, 사진 4)는 3년 전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었다. 정명호 목사가 손수건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그녀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고 다리에 힘

이 주어져 걷고 될 수 있게 됐다. 존 보스코 물리 성도(44, 사진 1)는 17년 전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탈구돼 오른쪽 다리를 끌고 다녀야 했다. 정 목사가 안수해 줄 때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워졌고, 이후 오른쪽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걷고 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리암 왕유 성도(56, 사진 2)는 고혈압을, 메리 조키 아토 성도(36, 사진 5)는 심한 위통증을, 콜린스 줄리엣 성도(27, 여)는 에이즈를, 로즈 아티에노 성도(23, 여)는 피부병을, 메트린 네케사 성도(20, 남)는 결핵을 치료받았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일동 549-46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 사량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 청주만민교회 충청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 새청주만민교회 충청 청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 충주만민교회 강원 청주시 미산회관 2동 626-1
● 미산만민성결교회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 목포만민성결교회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노형동 277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 강동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